

상무시민공원 '에너지 파크' 만든다

신기술 보고 듣는 체험 공간...한전, 80억 들여 조성 내년 9월 완공

광주시와 내일 협약식

광주 상무시민공원이 에너지 신기술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8일 광주시와 한전 등에 따르면 상무시민공원 광엑스포 주제관 일대 4만1750㎡에 에너지 파크를 조성한다. 광엑스포 주제관 등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테마 파크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는 에너지 신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교육시설이 들어선다. 또 자전거를 타면 생기는 운동에너지로 핸

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 그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LED조명을 켜는 체험시설 등도 조성된다. 부지는 광주시가 제공하고 한전이 사업비 80억원을 전액 부담해 조성한다. 이달 착공해 내년 9월 완공한다.에너지 파크의 향후 운영도 한전이 맡아서 할 예정이다. 1997년 완공된 상무시민공원은 전체면적 17만384㎡로 인조잔디구장, 조각공원, 물놀이 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에너지 파크가 들어서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상무시민공원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파크는 광주·전남과

한전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에너지밸리 사업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파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한전은 1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 룸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환익 한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파크 조성 및 운영관리 협약체결을 한다. 한편, 서기도 한전 에너지 파크와 연계해 상무시민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는 상무시민공원에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광장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야외공연장, 야외 카페,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이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울대공원 '기아 친환경 키즈 오토쇼' 기아자동차주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5일부터 6일까지 이틀에 걸쳐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분수대 광장 특별 소름에서 '기아 친환경 키즈 오토쇼'를 개최했다. <기아차 제공>

광주 숙박·음식점 권리금 전국 1위

평균보다 2382만원 많은 6956만원...계약서 대부분 작성 안해

장기 불황에 상가 공실이 늘고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전국 대도시 평균 상가권리금이 4500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 내 숙박·음식점업의 상가권리금이 7000만원에 가까워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대도시 상가권리금은 평균 4574만원으로 집계됐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내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69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평균 6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대구 여가관련 서비스업(6808만원) ▲서울 숙박음식점업(6421만원) ▲서울 여가관련 서비스업(6251만원) 세 곳이었다. 지역만 놓고 봤을 때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불

었으며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인천 4189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대도시 상가 10곳 중 7곳(70.3%)은 권리금이 형성돼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별로 인천이 88.8%로 권리금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82.5%로 뒤를 이었고 대구(80.4%), 울산(79.7%), 부산(78.4%), 대전(64.0%) 순이었다. 서울은 60.6%로 가장 낮았다. 상가 승계 때 권리금 거래와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평균 11%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울산이 각각 4.6%와 3.9%로 낮았으며 서울과 대전은 각각 9.7%와 10.6%로 평균에 근접했다. 대구는 27.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전기차 급속충전기 확대

한전 44대 추가...총 68대 운용

광주시는 한전과 함께 올 연말까지 전기차 동차 급속충전기 4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시내에는 모두 68대의 충전기가 운용되게 된다. 충전기 확대는 지난해 3월 시와 한전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는 설치장소를 조사해 부지를 제공하고 한전은 설치비 31억원과 충전기 관리, 요금 부과 등 사후관리를 맡았다. 충전기는 광주시 사업소,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며 내년부터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충전 요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kWh 당 313원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시는 2013년부터 전기차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187대를 보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식품가격 급등

신선식품 이어 과자·빙과류 인상

한동안 잠잠하던 식품 가격이 다시 줄줄이 오름세다. 최근 들어 과자와 빙과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나 부모들에게나 답답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주요 식품값이 올랐고 한우와 배추 등 농축산물 가격도 급등해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다. 최근 주요 빙과업체들은 아이스크림 개당 유통업체 납품가를 일제히 권장소비자가 기준으로 약 100원씩 올렸다. 해태제과는 대표 제품인 부라보콘 외 3종의 온 가격을 인상했다. 롯데제과는 구구콘, 빠빠코, 국화빵 등 7종의 가격을 올렸다. 빙그레도 봉어씨만고, 빵또아 등 7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앞서 지난해 롯데제과는 웰드콘과 설레임의 가격을 각각 인상했다. 빙과업체들은 아이스크림 시장 상황이 악화해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납품가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슬그머니 가격이 오른 데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과자값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롯데제과는 지난 3월 제크, 빠다코코넛 등 비스킷류의 가격을 2011년 이후 5년 만에 올렸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사모법과 장구 등 4종의 가격을 30%가량 인상했다. 중량도 늘렸지만, 가격 인상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유통업체에는 산도, 쿠키다스 등을 만드는 크라운제과 제품의 가격이 곧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 측은 "원가 인상 요인이 있어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4.13 총선이 끝난 만큼 다시 가격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선식품 가격도 최근 급등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신선식품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6% 올랐다. 신선식품 값은 2~3월에도 9.7%씩 상승했다. 특히 배추가격이 작년 4월보다 118.3%나 뛰었다. 양파와 무도 가격이 각각 70.3%, 66.3% 올랐다. 마늘(47.0%), 파(42.3%), 국산 쇠고기(18.1%) 값도 줄줄이 상승했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소비성향 최저

지난해 72.4%...하락폭목 65개

가계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평균소비성향이 전국 1인 이상 가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들이 8일 발표한 '평균소비성향 변동의 기여요인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소비성향은 72.4%로 지난해 대비 1.2%포인트 떨어졌다. 평균소비성향은 2006~2011년까지만 해도 77% 전후를 유지했지만 2012년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 2011년(77.1%)과 비교해 4년 사이에 4.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2015년과 2011년을 비교해 평균소비성향이 줄어드는 데 기여한 품목 수는 65개였다. 반면 평균소비성향을 높이는 데 기여한 품목은 34개였다. 이처럼 평균소비성향을 감소하게 만든 품목이 많은 것은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특정 몇 개 품목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평균소비성향 상승에 크게 기여한 주요 품목을 보면 실재 주거비(0.61%포인트), 자동차구입(0.53%포인트), 통신장비(0.52%포인트), 단체여행비(0.34%포인트), 보험(0.20%포인트), 문화서비스(0.16%포인트) 등이었다. 전셋값 급등과 월세로의 빠른 전환으로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났고, 정부의 소비 진작책 효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덕분이다. 또 매년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소득보다 통신장비와 관련된 소비지출 비중이 늘었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중으로 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반면 평균소비성향을 낮추게 한 품목을 보면 운송기구연료비(-0.79%포인트)와 연료비(-0.65%포인트) 등 석유류 관련 품목, 초등교육(-0.30%포인트), 중등교육(-0.11%포인트), 고등교육(-0.51%포인트), 학생학원교육(-0.48%포인트) 등 교육 관련 품목 지출이 주를 이뤘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가계의 석유류에 대한 지출 부담이 작아졌고, 학원인구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도 감소한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번호 숫자	
3	10	14	16	36	38	3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83,183,175	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5,965,966	40
3	5개 숫자일치					1,590,500	1,659
4	4개 숫자일치					50,000	81,917
5	3개 숫자일치					5,000	1,404,422

창사 64주년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이입니다. 순천!

순천광역시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순천대학교병원

대한민국 대표정원 순천국가정원